

‘파리에서 온 이메일’ 개정판 내놓은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문화도시 공직자의 책무 나를 소설가로 만들었다”

“문화청년을 꿈꾸거나 그런 유년의 꿈 이라기보다 문화예술도시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저를 소설가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퓨전소설로 읽는 프랑스 예술기행 파리에서 온 이메일’의 개정판을 내놓은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소설가가 꿈이었는데’는 질문에 문화예술도시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정치학과 출신의 정 부시장은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과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정 부시장은 “중앙부처에서 해외 파견 나갈 기회가 생기자 예술도시 파리를 자원했고 파리에 있는 동안 문화사나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며 이를 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2009년 2월부터 2년동안 파리에 있는 주OECD대표부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리한 글을 책으로 엮어내게 되는데 ‘혼자보기가 쉽다’는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남겨지는 에세이를 뒤어넘어 읽히는 책을 고민하던 정 부시장은 소설 장르로 곧바로 도전을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2011년 9월 나온 책이 ‘퓨전소설로 읽는 프랑스 예술기행 파리에서 온 이메일’이다.

9월 주인공 조진정과 인정, 그리고 조진정의 온라인상의 다른 인물 현정(소울메이트)을 통해 감성적인 사랑을 그려냈다.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주고 받는 이메일을 통해 미라보 다리와 세느강, 베

광주비엔날레 등 거처며 예술 중요성 절절 OECD파견 파리 자원 현지서 문화예술공부 교육철학 담은, 손자와 함께 하는 책 쓰고파

르사이유 궁전, 루이 14세, 고흐, 기욤 아폴리네르, 빅토르위고와 에밀 졸라, 로댕 등 프랑스 문화와 철학, 예술에 대한 고찰을 소개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동행하는 형태로 광주비엔날레와 부산국제영화제, 강원도 이효석 문학관, 제주도 올레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시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후 재난안전 특강을 하면서 딱딱한 재난안전에 문화와 스토리를 얹어 전달한 것이 매개가 됐다. 수강생들이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추가 발간을 요구했고 출판사가 개정판을 권유해 만들어졌다.



개정판에는 최근 이슈가 된 드라마 ‘SKY캐슬’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등 교육, 방탄소년단(BTS)의 파리공연에 대한 파리 젊은이들의 열광 등 대중문화, 시사(마크롱 대통령의 부유세 폐지와 유류세 인상 시도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 등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글쓰기라면 유년시절 염전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효도를 다짐하는 글을 써드렸을 때 아버지가 흡족해하시던 모습과 선생님들의 권유로 초등학교 6년

동안 일기를 쓴 것이 전부”라는 정부시장은 “그런 작은 글쓰기가 다시 글을 잡아보니 내적인 힘의 원천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후에는 시대를 거스르거나 관통해 다른 세대들과 수직적 대화를 해보고 싶다”며 “고전을 읽거나 책을 써 후세들이 내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혁신에 관한, 새로운 교육철학을 담은 글을 써보고 싶다”며 “손자손녀들이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학습여행을 할 수 있는 책이 꿈”이라고 말했다.

완도군 노화읍이 고향인 정 부시장은 “해방 후 면장을 하였던 아버지는 퇴임후 염전을 운영하며 자식을 교육에 유달리 공을 들였다”며 “제 공부를 위해 광주로 이사를 하였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자 다시 완도로 돌아가시는 등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저자 정중제 광주 행정부시장은 전남 완도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관광문화국장,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안전정책실장,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등을 역임했다.

주대중기자 ydy2132@srb.co.kr

“첫 개방형 수상 반갑지만...”

광주시, 신임 광주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선임 전국 최대 예술단 역할과 방향 등 과제 산적

광주문화예술회관장(4급)으로 선임된 성현출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을 두고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뜨겁다.

문화회관 역사상 첫 개방형 광장인 만큼 문화예술 전문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신임 문화예술회관장에 성현출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을 선임했다.

지역 문화계는 첫 개방형 문화회관장 도입에 일단 환영을 표하고 있다.

첫 개방형 광장 선임을 두고 지역 문화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개방형 직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문화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는 “문화예술회관장은 문화 전문 인력이 맡아가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이 고작 1.6년에 불과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며 “전문가가 아닌 평년을 앞둔 공무원이 맡다보니 자리에 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예술단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양새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개방형 관장제는 효율적인 경영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회관의 특성상 예산 확보나 공무원 조직과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첫 개방형 관장제 도입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광주문화회관은 50년 역사의 시립관련 약단을 비롯해 8개의 예술단을 이끌고 있

나 시립예술단의 존재감이 떨어지며 공연계는 물론 지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어 혁신과 변화의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 또 예술단과에는 노조가 2개에 달하고 예술단의 지역사회 책무는 떨어진다든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 TF위원장을 맡았던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는 “예술단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실력을 표출할만한 여건이 미비하다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무원 관장이 조율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이같은 대내외의 산적한 과제 앞에 개방형을 도입했지만 문화예술과 동떨어진 인물이 선임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화계 인사들은 “그분이 어떤 본인지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알수 없는 노릇”이라며 “향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성 신임 관장은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와 조선대 체육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남구문화원장, 남구의회 의원, 광주문화재단 이사, 조선대·송원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성현출 신임 관장은 “첫 개방형 관장으로 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인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역점 추진할 생각이다. 올 7월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광주만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중기자 ydy2132@srb.co.kr

수요렉처콘서트 등 신설 ‘문화플랫폼’ 구축

광주문화재단, 올해 8개 역점사업 추진 청년·문화예술인 위한 문화일자리 사업도

광주문화재단이 그동안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고음악 연주를 비롯해 다양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을 추진하고, 지지부진했던 청년 및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일자리 사업을 대거 확대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창립 8주년을 맞아 수요렉처콘서트 등 올해 추진하는 역점 8개 사업을 발표했다.

재단은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위해 봄·여름·가을 시즌제 운영을 통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가 담긴 공연을 집중운영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열리는 제18회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연계해 국제행사 붐을 조성하고 국내외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해 나

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고음악 연주와 다양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수요렉처콘서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렉처콘서트는 음악분야 강사진의 강의와 소규모 공연을 결합한 공연이다. 유네스코미디어창의도시 광주를 시민들이 더욱 가깝게 느끼고 창의도시 광주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아트 작가 육성, 미디어아트 콘텐츠 창·제작 등 미디어아트 기반강화에서 적극 나선 방침이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재단은 특히 청년 및 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문화일자리 관련 사업을 대거 확대해 지



역의 차세대 문화기획자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광주의 문화자산 확충을 위해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을 개발해 무등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등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제작된 민주주의의 상징곡인 남을 위한 행진곡의 국내외 공연을 추진하고, 창작 뮤지컬을 신규 제작해 갈라 형태

시연 등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 창립 8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8가지 역점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민이 문화예술로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수묵으로 만나는 돼지 ‘만복 기원’

다산미술관, 4월 25일까지 ‘행복한 2019’ 전

풍성함과 다복함을 상징하는 돼지가 수묵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해 지역에서 열린 초대 국제수묵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수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묵의 향기를 한데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다산미술관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오는 4월 25일까지 미술관 제1기획전실에서 ‘행복한 2019’전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신강균, 정석훈, 조연수, 조창현, 정명호, 한상운, 박익정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가 저마다 전하고자 하는 글귀와 더불어 수묵 안에서 어우러지는 돼지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소한 웃음을 짓게 한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글씨에 화화적인 요소를 도입한 현대 서예와 시, 서, 화가 어우

러지는 문인화를 통해 돼지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 작품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만 그 진정한 의미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동통하게 살아 오던 돼지는 풍성함과 다복함을 상징한다. 또 ‘돼지’라는 단어는 무엇이든 이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운을 주는 우리말 ‘되지’와 발음이 같아 그 자체로도 서도 긍정의 기운을 준다.

여기에 개별 작품과 작품명에서 재기발랄하게 등장하는 돼지들이 유쾌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을 내뿜는다.

다산미술관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행복한 2019년을 기원하는 작가 15명의 신년 메시지를 한데 모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올해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즐거운 일만 가득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전통문화관서 남도의 혼 느껴요

9일 개관 7주년 기념공연...광주시 무형문화재 등 출연

광주 전통문화관이 개관 7주년을 맞아 남도의 혼과 신명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9일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관 7주년 기념공연을 벌인다.

오후 2시부터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길놀이·탈춤·사물놀이·가수대문 앞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부터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의 가야금병창과 남도민요 무대, 퓨전 국악밴드 MEC(Micro Expression Club)의 연주가 서석당에서 흥겹게 펼쳐진다.

또 남도민요 연주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대거 출연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6호 판소리 춘향가 방성춘 명창, 제1호 남도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명창, 제18호 가야금병창 문명자·이영애·황승욱 명창 등이 출연해 가야금 병창 ‘호남가’와

‘춘향가 중 사랑가’, 남도민요 ‘동백타령’과 ‘진도아리랑’을 신명나게 들려준다.

특히 국악밴드 MEC(Micro Expression Club)가 특별 초대돼 전통문화향연을 들려준다.

국악밴드 MEC는 거문고 연주자 이정석을 대표로 대금 박기용, 모듬북 전계열, 건반 장현숙, 아쟁 김슬지 등으로 구성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력과 퓨전국악 단체다. 특히 MEC 대표 이정석은 거문고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음악으로 주목받는 국악인이며, 건반을 연주하는 장현숙은 이날 연주될 곡의 일부를 직접 작곡하는 등 눈길을 끄는 연주자이다. 연주

곡목은 재일동포 작곡가 양방언의 ‘프론티어’를 비롯해 현대적으로 편곡된 ‘너영나영’, ‘청아’, ‘산뱃놀이’ 등을 들려준다.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광주 전통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개관 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설공연·전통예술강좌·체험 등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선수단·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광주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상징공간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대중기자 ydy2132@srb.co.kr

‘2019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공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소외계층 미디어 격차 해소·진로체험 기회 제공

22일까지 접수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9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공모모집에 나섰다.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는 호남지역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가자는 차량 내 방송장비가 설치된 이동형 체험스튜디오에서 뉴스, 라디오처럼 등 장르별 제작 체험과 야나운서, 가상캐스터, DJ 등 방송직업 체험을 2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 ▲도시산간지역 학교 ▲진



로체험 박물관 등 공익 목적의 대규모 행사에 총 29회 지원이 이뤄진다.

공모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며 접수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seo@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28일 발표한다. 문의 062-650-0337.

주대중기자 ydy2132@srb.co.kr